

<2021 경찰간부후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③	④	④	③	②	①	①,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③	①	④	③	③	②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③	정답 없음	①	③	①	②	②	①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②	②	①	③	④	③	②	②	②

1. 우리나라에서 화석 인골이 출토된 구석기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용곡인이 출토되었다.
- ②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두루봉인이 출토되었다.
- ③ 평양 대현동 유적에서 역포인이 출토되었다.
- ④ 제천 점말 동굴에서 홍수아이가 출토되었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평양 대현동 유적에서는 1977년 역포인이라 불리는 7~8세 정도의 구석기인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용곡인은 평양 상원군 용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이다.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는 덕천인·승리산인이라 불리는 인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 ②, ③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홍수아이라 불리는 인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2. 다음 단군신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평양은 본디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라는 설명이 있다.
 나.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은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였다.
 다. 이규보가 지은 제왕운기에도 단군신화가 실려 있다.
 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통감에도 단군신화가 실려 있다.
 마. 단군기원은 삼국유사의 요임금 즉위 50년(기원전 2283년)을 따른 것이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마 ④ 라, 마

정답 ③

[정답 해설]

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중 동천왕 대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왕(동천왕) 21년(247) 봄 2월에 왕이 환도성으로 전란을 겪고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仙人) 왕검(王儉)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되어 왕험(王險)에 도읍하였다.”고 하였다.

— 삼국사기 —

나. 『삼국유사』에는 『위서』와 『고기』를 이용해 단군왕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어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朝鮮)이라 했으니 고[高]와 같은 시대이다.”

— 삼국유사 —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하(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중략)…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

— 삼국유사 —

라.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평양의 역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본래 삼조선(三朝鮮)의 구도(舊都)이다. 당요(唐堯) 무진년에 신인(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전조선(前朝鮮)이다

—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통감』에는 단군조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방(東方)에는 최초로 군장(君長)이 없었는데, 신인(神人)이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國人)이 세워져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단군(檀君)이며 국호는 조선이었는데, 바로 당요(唐堯) 무진년(戊辰年)이었다.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뒤에는 백악(白岳)으로 도읍을 옮겼다.

- 동국통감 -

[오답 피하기]

다. 『제왕운기』는 이승휴의 저서이다.

마. 단군 기원은 『동국통감』의 무진년 기록을 기준으로 기원전 2333년으로 보고 있다.

3. 다음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토지는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혼인하는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하고 신랑 집에서는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나. 대군장이 없고 후·읍·군·삼로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가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 ③ 가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 ④ 나 -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정답 ④

[자료 분석]

(가)는 옥저의 민며느리제, (나)는 동예의 책화와 족외혼 풍속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④ 동예 사람들은 꺼리는 것이 많아서 큰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신지, 읍차는 삼한의 군장 명칭이다.
- ②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또한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 ③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풍부했던 나라는 동예이다.

4. 다음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에서 시기적으로 네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 가. 낙랑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 나. 위(魏)의 장수 관구검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 다.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하였다.
- 라.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북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 마. 전연 모용황의 침략으로 궁궐이 불타고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정답 ③

[정답 해설]

나. 관구검의 침입을 받은 것은 동천왕 대의 일이다. 동천왕은 요동 진출로를 놓고 위(魏)나라를 선제공격했으나 244~245년 2년에 걸쳐 유주자사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환도성이 함락되는 등 위기를 겪었다.

가. 고구려는 4세기 초반 미천왕 때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여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대동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마. 모용황의 침입을 받은 것은 고국원왕 대의 일이다. 고구려는 342년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온 전연 모용황의 침략을 받았다. 당시 고구려는 수도가 함락·파괴되고 선왕의 시신 및 왕모 주씨가 인질로 잡혀가는 등 일대 국난을 당하였다.

라. 후연 공격과 숙신 복속 등은 광개토대왕(391~413) 대의 일이다. 광개토대왕은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대하였고, 남으로는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다. 고구려 영양왕은 598년 수의 침입에 대비해 수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5. 백제의 무덤 중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부여 능산리 1호분(동하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① 방이 여러 개인 다실묘이다.
- ② 봉토를 덮은 굴식돌방무덤이다.
- ③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다.
- ④ 무덤방의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1호분은 공통적으로 무덤 벽면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송산리 6호분과 동하총은 단실묘이다. 백제는 나주 흥덕리 돌방무덤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단실묘가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주요한 무덤 형식이었다.
- ②, ③ 송산리 6호분은 벽돌무덤이지만 동하총은 굴식돌방무덤이다.

6. 다음 중 밑줄 친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수가 또 말하기를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 왕으로 미리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연이 있어 동이 공공의 종족과는 같지 않다.”...(중략)... 신인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은 없다. 그러므로 이웃나라가 꾀하는 것이다. 마땅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자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차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신인이 “황룡사 호법 룡은 나의 장자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에 가서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귀국하여 절 안에 9층탑을 조성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 삼국유사 -

- ①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 ② 당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 ③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④ 인평(仁平)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자장의 황룡사 9층 목탑 건립과 관련된 일화로, 밑줄 친 ‘국왕’은 선덕여왕이다.

[정답 해설]

④ 선덕여왕은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황룡사는 진흥왕 때 건립되었다(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은 선덕여왕 대).
- ② 진덕여왕 대인 648년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나·당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③ 삼대목은 진성여왕 2년(888)에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향가집이다.

7. 다음 보기의 시를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 편에 편지 한 장 부쳐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안들리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日南)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 ① 화엄종을 개창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다.
 ② 당나라 현장법사에게서 수학하고 유식론을 발전시켜 당나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③ 당을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각 지역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④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혜초가 지은 시이다.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서쪽 인도로의 여행을 의미), ‘계림(신라)으로 날아가리’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 혜초는 신라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활동하였으며, 중국을 넘어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였다. 그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서역) 여러 나라의 성지를 순례하고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기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의상은 당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을 창설하였으며,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② 원측은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파를 성립하였다.
 ④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중관파와 유식파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8.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과 함께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였다.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 삼국사기 -

가.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다.

나. 진흥왕대에 신라로 병합되었다.

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라. 이 나라의 지배층 무덤으로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하다.
 마. 5세기 말에는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신라 법흥왕 대의 금관가야 멸망(532)과 관련된 자료로, 김구해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다. 보기 중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이다.

[정답 해설]

다. 금관가야는 신라에 파견된 고구려 광개토대왕 군대와와의 충돌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이후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가. 중국 남조의 제나라와 교류한 것은 대가야이다.

나.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대에 신라에 병합되었다(532).

라. 금관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유명하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지배층 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마. 5세기 말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은 대가야이다.

9. 다음 일본 정찰원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촌락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나. 촌주가 소유한 내시령답과 관모전답이 있었다.
 다. 촌주가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촌 단위로 매년 다시 작성하였다.
 라. 호구는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 사해점촌, 살하지촌 등 중원경 부근 4개 자연 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자료 분석]

보기는 모두 통일신라 촌락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오답 피하기]

가. 촌락 문서에는 토지의 종류와 면적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나. 촌주에게 지급된 토지로는 촌주위답이 있다. 내시령답은 일종의 관료전이며, 관모답은 관청 경비 충당을 위한 토지였다.
 다. 촌락 문서는 3년마다 작성되었다.
 라. 호(戶)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마. 촌락 문서는 사해점촌, 살하지촌 등 서원경 부근(중원경 부근X)의 4개 자연 촌락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10.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나라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열국을 주관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또한 아득히 멀어서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길흉을 물음이 끊어졌습니다. 어진이와 가까이 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 속일본기 -

가. 동경 옛 터에서 이불병좌상이 출토되었다.
 나. 상경 옛 터에서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되었다.
 다. 중경 옛 터에서 6m가 넘는 거대한 석등이 출토되었다.
 라. 지린성 장백진에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주는 벽돌로 만든 영광탑이 있다.
 마. 정혜공주 묘지문에서 부왕인 문왕을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 칭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나, 마

정답 ①, ④(복수정답 인정)

[자료 분석]

제시문은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의 일부이다. 보기 중 발해의 불교 신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마이다(‘마’는 복수 정답 인정 보기).

[정답 해설]

가. 발해의 이불병좌상은 동경 용원부 옛터에서 발견되었으며 발해의 불교 문화 및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나. 발해의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상경성 옛터에서 발견되었으며 넓은 어깨와 튼튼한 두 다리 등 강건한 고구려 불상의 전통이 남아 있다.
 마.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은 정효공주 묘지문과 정혜공주 묘지문에서도 발견된다.

[오답 피하기]

다. 길이 6m가 넘는 발해 석등은 상경성 옛터에서 발견되었다.
 라. 영광탑은 벽돌로 만들어진 전탑으로 고구려의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11.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병들고, 나라의 창고는 비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가) 을(를) 만 들고 이를 시정 하고자 하니...(중략)... 기한 내 시정 하는 자는 그냥 두겠으나, 기한 경과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 고려사 —

- ① 교정도감 ② 도병마사
③ 식목도감 ④ 전민변정도감

정답 ④

[자료 분석 및 정답 해설]

- ④ 전민변정도감은 권세가가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농민을 되찾아 바로 잡기 위한 임시 개혁기관이다. 고려 원종 때(1269) 처음 설치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충렬왕, 공민왕 대에도 설치된 경우가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 시기 국정을 총괄하는 중심기관이었다.
②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기구이다.
③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참여한 회의기구로,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었다.

12. 다음 고려 시대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중앙군 2군은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맡았다.
나. 특수군인 광군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다.
다. 중앙군 6위 가운데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임무를 맡았다.
라. 5도의 주현군은 직업 군인으로 군인전을 지급받고 역을 자손에게 세습하였다.
마. 양계의 주진군은 주·진에 주둔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 전투 부대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자료 분석]

보기 중 옳은 내용은 나, 다, 마이다.

[정답 해설]

나. 광군은 고려시대에 거란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된 특수군단으로 947년(정종 2)에 설치되었다.

다. 6위는 고려의 중앙군으로, 좌우위·신흥위·흥위위·금오위·천우위·감문위가 속했다. 좌우위·신흥위·흥위위는 개경과 국경(변방) 방위를, 금오위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한 경찰부대였으며, 천우위는 국왕을 시종하는 의장대(儀仗隊), 감문위는 궁성 안팎의 여러 문을 지키는 수문군의 역할을 담당했다.

마. 주진군은 양계에 배치된 상비군으로 좌군·우군·초군으로 구성되어 국경 수비를 전담하였다.

[오답 피하기]

가.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한 것은 6위이다. 2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 역할을 했다.

라. 주현군은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 중 16세 이상(16~59세)의 장정들로 조직되었으며, 군인전은 지급되지 않았다.

13.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때 대사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가득했다. 마침내 9재로 나누어 ...(중략)... 그 후로부터는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이는 9재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이름하여 문헌공도라 했다. 또 유신으로서 도를 세운 이가 11인이 있다.

- 고려사 -

- 가. 향리의 공복을 규격화하였다.
- 나. 웅장한 규모의 홍왕사를 창건하였다.
- 다. 사형수에 대해 삼심제를 실시하였다.
- 라.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여 3경에 포함하였다.

-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마 ④ 다, 마

정답 ①

[자료 분석]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립한 것은 고려 문종 때이다.

[정답 해설]

나. 홍왕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고려 문종의 원찰(願刹)로 창건되었다.

다. 고려 문종 때에는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실시하였다.

문종(文宗) 원년(1047) 8월 상서형부(尙書刑部)에서 사형을 복주(覆奏)하여 아뢰자 왕이 말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과인이 매번 사형수에 대해 들을 때마다 반드시 세 번의 심리[三覆]를 기다렸다가 판결하면서도 오히려 진실을 놓칠까 염려하는데, 혹시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어 소송하려고 하더라도 길이 없어 한(恨)만을 머금고 소리를 삼켜야만 한다면 원통하지 않겠는가? 그 심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마. 고려는 3경(개경, 서경, 동경)을 두었으나 남경길지설이 대두되면서 문종 대 한양을 남경으로 삼았다.

[오답 피하기]

가. 향리의 공복을 규격화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이다.

현종(顯宗) 9년(1018) 장리의 공복을 정하였다. 주(州)·부(府)·군(郡)·현(縣)의 호장(戶長)은 자삼(紫衫), 부호장(副戶長) 이하와 병창정(兵倉正) 이상은 비삼(緋衫), 호정(戶正) 이하와 사옥부정(司獄副正) 이상은 녹색(綠衫)을 입고 모두 가죽신[靴]을 신고 활(笏)을 잡는다. 주·부·군·현의 사(史)는 짙은 심청삼(深靑衫)을, 병창사(兵倉史)와 여러 단사(壇史)는 천벽삼(天碧衫)을 입으나, 가죽신과 활은 없다.

- 고려사 -

라.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한 것은 고려 예종 때이다.

14.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고금록 - 박인량이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 나. 삼국사기 - 김부식이 주도한 관찬 사서로 기전체 서술 방식이다.
- 다. 해동고승전 - 각훈이 선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 라. 동명왕편 - 이규보가 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찬양한 서사시이다.
- 마. 본조편년강목 - 민지가 편찬한 고려의 역사서로 기사본말체 서술방식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자료 분석]

보기 중 옳지 않은 내용은 가, 다, 마이다.

[정답 해설]

나.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1145)는 기전체 역사서로, 본기, 지, 연표, 열전으로 이루어졌다.

라. 『동명왕편』(1193)은 이규보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가. 『고금록』은 박인량이 저술한 역사서지만 현전하지 않는

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이다.

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교종 입장(선종X)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마. 민지의 『본조편년강목』은 현전하지 않지만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한 서술방식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유에 왕이 개경을 출발하여 승천부에 이르고 병술에 강화의 객관에 들었다. 이때 장마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진흙길이 발목까지 빠져서 사람과 말이 쓰러졌다. 고관이나 양가의 부녀들로서 맨발로 엎고 이고 하는 자까지 있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서 갈 바를 잃고 소리 내어 슬피우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 고려사절요 -

- ① 고려 원종 재위시에 있었다.
- ② 당시는 최우가 실권을 장악한 무신집권기였다.
- ③ 몽고의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④ 강화는 39년 간 고려의 도읍지로 기능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고려 정부의 강화 천도와 관련된 사료이다. 왕이 개경을 출발해 강화의 객관에 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 고려 정부는 최우 집권기인 1232년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다.
- ③ 1차 침입 이후 몽골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자 최우는 이에 반발해 강화도로 천도하고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④ 강화는 1232년 강화 천도 시기부터 1270년 개경 환도 때까지 39년 간 고려의 도읍지로 기능했다.

[오답 피하기]

- ① 강화 천도는 고려 고종(재위 1213~1259)에 있었던 사건이다.

16. 원간섭기 고려에 전래된 원의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족두리 ② 언어 '○○치'
- ③ 음식 '소주' ④ 의복 '두루마기'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족두리는 부녀자가 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冠)으로, 원에서 들어온 문화 중 하나이다.
- ② '장사치' '벼슬아치' 등 사람을 가리키는 '치'라는 언어가 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 ③ 만두, 소주와 같은 음식 문화가 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 [오답 피하기]
- ④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겹옷으로, 원의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17. 다음 고려 시대 대외관계를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였다.
나. 동북 9성을 여진에게 주었다.
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이겼다.
라. 거란에서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다.
마.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① 가-라-다-마-나 ② 나-마-라-다-가
- ③ 라-다-마-나-가 ④ 마-나-라-다-가

정답 ③

[정답 해설]

라. 고려 태조는 거란에서 보내 온 낙타 50필을 만부교 아래에 매어놓아 굶겨 죽게 하였다(만부교 사건, 942).
다. 귀주대첩(1019)은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친 전투이다.
마. 별무반은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한 특수부대로 숙종 대인 1104년에 창설되었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예종 2)
나. 고려는 여진의 조공 약속과 동북 9성 수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109년 이곳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가. 몽골군은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을 구실로 1231년 고려를 침입하였다(1차 침입).

18. 다음 보기의 (가)에 들어갈 장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 온다
을축 사월 갑자일에 (가) 을(를) 이룩하세
도편수의 거동을 보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가) 중건에 다 들어간다

- ① 창덕궁 다음으로 창건되었다.
- ② 조선 후기에 법궁(정궁)으로 기능했다.
- ③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④ 궁궐 동쪽에 사직단, 서쪽에 종묘가 배치되어 있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경복궁 중건을 비판하는 경복궁 타령의 일부로, (가)에 해당하는 곳은 경복궁이다.

[정답 해설]

- ③ 정도전은 새로 이룩된 궁궐을 경복궁, 법전을 근정전으로 하는 등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지어 바쳤다.

[오답 피하기]

- ① 경복궁은 조선 태조 때인 1395년, 창덕궁은 태종 때인 1405년에 건립되었다.
- ②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이 법궁으로 기능하였다.
- ④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가, 서쪽에 사직이 각각 배치되었다. 종묘는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가의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었다.

19. 조선 전기 문화·예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박한 멋을 보여 주는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 ③ 안평대군, 김정희 등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道)는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몽유도원도는 1447년(세종 29) 안평대군이 꿈에 도원에서 광경을 안견에게 말하여 그리게 한 것으로, 현재 일본 텐리(天理)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이 지문도 복수정답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다소 의문점이 남는다. 청화백자는 조선 초기에도 제작되었다. 출제자가 소박하다는 표현을 분청사기에만 적용하여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인지,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는 표현을 유행하였다는 의도로 출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전자 쪽이라면 소박하다는 주관적인 관형어구로 접근한 것은 아쉬운 면이 있다.)
- ③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이다(안평대군은 조선 전기 인물).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빠진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사실적인 산천 묘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산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20. 다음 보기의 (가), (나), (다)를 옳게 나열한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서울은 (가) 에 올리고 지방은 (나) 에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에 신고하고,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 경국대전 형전 —

- ① (가) 승정원 (나) 수령 (다) 홍문관
- ② (가) 의금부 (나) 수령 (다) 홍문관
- ③ (가) 주장관 (나) 관찰사 (다) 사헌부
- ④ (가) 의금부 (나) 관찰사 (다) 사헌부

정답 ③

[정답 해설]

조선시대 민원 절차는 네 단계의 중층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정소하였다.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상위 기관에 호소할 수 있었는데 이를 ‘소원(訴冤)’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소원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억울하고 운통한 일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은 주장관(主掌官)에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21. 다음 조선 시대 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포르투갈로부터 전래된 조총을 사용하였다.
- ② 비격진천뢰는 심지가 다 탔을 때 폭발하면서 내부의 방철을 사방에 뿌리는 무기였다.
- ③ 불랑기포는 16세기 중국에 전래된 청동제 포로 평양성 전투에서 사용되었다.
- ④ 선조 때 신기전이라는 화살을 발명하였는데, 사격 각도의 조절 범위가 커서 사거리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받아들였고, 임진왜란 당시 포르투갈로부터 전래된 조총을 사용하였다.
- ② 비격진천뢰는 조선 선조 때 군기시(軍器寺) 화포장 이장손이 제작한 포탄(砲彈)으로 심지가 다 탔을 때 폭발하면서 내부의 방철을 사방에 뿌리는 무기였다. 비격진천뢰는 공격 지점에 낙하한 후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는 원리로 제작되었다.
- ③ 불랑기포는 중국 명나라 시대에 도입한 서양식 후장포이다.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전해져, 이후 일본과 조선에서도 사용되었다. 조선에서는 당시 귀화한 박연(벨테브레)이 서양식 포술을 지도했다.

[오답 피하기]

- ④ 신기전은 최무선에 의해 제조된 주화(走火: ‘달리는 불’이라는 뜻)를 세종 30년(1448)에 개량하여 만든 로켓형 병기이다.

22.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속한 정치 세력과 관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은(는)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시기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 시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지금 (가)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왕조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가)의 ‘조의제문’을 실었도다.

- ① 향촌 자치를 강조하였다.
- ② 대체로 중소 지주 출신이 많다.
- ③ 정도전·조준 등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 ④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조의제문』이라는 힌트를 통해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김종직이고 그가 속한 정치 세력은 사림파이다. 김종직은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 즉 의제를 조상(弔喪)하는 글(『조의제문』)을 지었는데, 훈구 세력은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 하여 이를 문제 삼아 연산군에게 고하였고 이는 무오사화(1498)의 원인이 되었다.

[정답 해설]

- ①, ② 사림파는 향촌 자치를 강조하였으며, 대체로 중소 지주 출신이 많았다.
- ④ 사림파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③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 개혁파를 계승한 것은 훈구파(관학파)이다. 사림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들로 온건 개혁파(정몽주, 길재) 등의 학통을 이어갔다.

23.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이 행했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학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 소란스럽더니, 지금은 한편 사람을 모조리 반역하는 당으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넓지 못하는데, 요즘은 모두 같은 당의 사람만 임용한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공격을 일삼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나의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니 혹시 의심하거나 기회로 생각하여 상소를 올려 남을 모함한다면 종신토록 금고하여 내가 그들과는 나라를 함께 할 뜻이 없음을 보이겠다.

- 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 ②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③ 이조전랑의 3사 관리 추천권을 없앴다.
- ④ 남인 계열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하였다.

정답 없음

[자료 분석]

자료는 영조가 즉위 이후 탕평을 표방하면서 발표한 교서이다. 영조의 탕평책은 정국의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붕당 타파와 당론 제거를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정답 해설]

- ①, ② 영조는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론의 주체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 ③ 영조는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④ 출제자는 정조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의도하고 출제한 것 같으나 영조와 정조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지문이다.

24. 다음 보기의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을(를) 팔아 진휼곡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므로 쌀 여섯 가마를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할 것이다. - 속중실록 -

- ① 평민이나 천민들이 자동적으로 향안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 ② 국가재정이 어렵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구휼을 위해 남발되었다.
- ③ 조선 시대에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 다.
- ④ 임진왜란 때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공명첩이다. 공명첩은 조선 시대에 실제로 벼슬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으로,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을 말한다. 일종의 매관직첩(賣官職帖)이다.

[정답 해설]

②,③,④ 공명첩은 조선 시대에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으로, 이 제도는 임진왜란 때에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戰功)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주어졌다.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렵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恤)을 위해 남발되었다. 공명첩의 종류는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賤人)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鄉帖) 등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향안(鄉案)은 조선의 지방 자치 기구인 유향소를 운영하던 품관(品官)의 명단이다. 향안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향촌을 지배하던 재지 사족들이 입록될 수 있었다.

25. 다음 보기의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을(를) 하면 파종하는 것에 비해 힘이 5분의 4가 적게 든다. 그러므로 일할 사람이 많으면 한없이 경작할 수 있고, 땅이 없는 자는 빌려서 농사지를 수도 없다.

- ① 못자리에서 일정기간 모를 키우다 논에 옮겨 심는 것이다.
- ② 규칙적으로 모를 옮겨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유리하였다.
- ③ 조선 초기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조선 후기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④ 모를 옮겨심기 전까지 쉬고 있는 논에 보리를 심어 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늘어났다.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이앙법이고, 자료는 이앙법(모내기법)에 관한 『성호사설』의 기록이다.

[정답 해설]

①,②,④ 이앙법은 못자리에서 일정기간 모를 키우다가 논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모를 옮겨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김매기)에 유리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모를 옮겨심기 전까지 쉬고 있는 논에 보리를 심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할 수 있었다.

[오답 피하기]

③ 조선 초기 정부는 이앙법을 금지하고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이를 명시하였다. 직파법은 일단 벼씨가 뿌리를 내리면 그 뒤에 다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 반면, 이앙법을 실시할 경우 모내기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벼가 완전히 말라 죽어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26. 다음 보기의 주장을 한 사람이 옳게 연결된 것은?

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나.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중략)...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 때, 국가에 바치는 세를 먼저 제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의거하여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 ① 가 - 이익 나 - 정약용
- ② 가 - 유형원 나 - 이익
- ③ 가 - 박지원 나 - 유형원
- ④ 가 - 정약용 나 - 유형원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이익의 한전론, (나)는 정약용의 여전론이다.

[정답 해설]

- ① 이익은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익의 한전론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에 대해서는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한편 정약용이 『전론』에서 제시한 여전론은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주장한 것으로서,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경작하고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는 것이었다.

27. 다음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가. 19세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었다.

나. 최제우는 동경대전 과 용담유사 를 펴내 교리를 정리하였다.

다.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반외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라. 안정복이 이 사상을 비판하는 천학문답 을 저술하였다.

마. 정부는 사교로 규정하고 순조 즉위 후 대탄압을 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자료 분석]

‘사람이 곧 하늘이라’(인내천, 人乃天)라는 내용을 통해 동학의 사상에 대해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가. 동학은 19세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860년 철종 때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다. 동학은 외래종교 천주교의 세력 서학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동학이라 불리었고,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반외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오답 피하기]

나. 『동경대전』 과 『용담유사』 의 저자는 최제우이나 이를 간행하여 교리를 정리한 것은 최시형이다. 정부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자 동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교주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2대 교주 최시형이 교단을 정비하고 『동경대전』 과 『용담유사』 를 펴내 교리를 정리하면서 동학은 농촌 사회에 더욱 퍼져갔다.

라. 『천학문답』 은 조선 후기의 학자 안정복이 쓴 천주교 비판서이다.

마. 순조 즉위 후 대탄압이 가해진 것은 천주교이다.

28. 다음 보기의 내용이 발표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하였으며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독립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 ① 지방 제도는 8도의 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하였다.
- ②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 ③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였다.
- ④ 정치부문에서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였으며, 8개 아문을 7부로 바꾸었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1894년 12,월 제2차 갑오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흥범 14조를 발표한 사실을 보여준다.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인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정답 해설]

- ① 2차 갑오개혁 때에는 8도의 행정 구역을 23부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 ③ 2차 갑오개혁 때에는 재판권을 재판소로 단일화하여 지방 재판소, 한성 재판소, 고등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켰다(지방관의 사법권 박탈).
- ④ 2차 갑오개혁에서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조선 교육령은 일제 강점기(1910~1945)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이다.

29. 학교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 ②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③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④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1995년 교육법 개정으로 1996년 3월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② 일제의 통감부 지배 아래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③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에 의해 소학교를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을 가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 ④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소학교령이 공포된 것은 1895년 7월의 일이다.

30.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 가.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 타를 해산할 것.
나. 대한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
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제국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다 → 가 → 라
③ 다 → 라 → 나 → 가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④

[정답 해설]

- 라.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러·일 전쟁 발발 약 보름 뒤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요충지 사용·일본의 동의 없이는 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다. 1904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내용이다. 러·일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외교와 재정 분야에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임명하였다.
나.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늑약이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가. 1907년 7월 체결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부수각서의 내용이다. 일제는 이를 통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31. 다음 보기의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 정신도 없었다. ...(중략)...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 ① 해외동포의 구호와 지방의 수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 등을 하였다.
②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 사건 등 사회운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③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부인강좌와 순회강연, 야학 운동 등으로 문맹을 퇴치하고 남녀 평등 의식을 깨우치게 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1927년 신간회 창립을 계기로 조선 여자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민족 협동 전선체인 근우회의 창립 취지문이다.

[정답 해설]

- ① 근우회는 해외동포의 구호와 지방의 수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 등을 하였다. 관북지방의 수재민 구호 모금 운동, 경상도 일대 한재민 구호 대책 등이 그것이다.
② 근우회는 사회운동의 실태 조사와 참가로, 1927년 6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사건과 그 해 11월 중앙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사건, 12월 제일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사건 등을 조사하였다.
④ 근우회는 여성 교양 강좌와 야학, 토론회를 열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맹 퇴치 및 계몽활동에 힘을 쏟았다.

[오답 피하기]

- ③ 찬양회에 대한 설명이다. 1898년에는 서울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회가 조직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찬양회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여성통문'을 발표하였다.

찬양회는 여성 계몽을 위한 연설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 교육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32.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 ① 치안유지법
- ② 미쓰야 협정
- ③ 경찰범 처벌규칙
- ④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1925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군벌 사이에 맺은 미쓰야 협정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② 미쓰야 협정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봉천 군벌 경무처장 우진이 맺은 협정이다. 이 협정의 체결로 만주의 중국 관리들이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에 넘겨주면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관리들이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농민도 피해를 입었고, 독립운동 세력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중국 관리의 탄압도 피해야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치안 유지법(1925)은 일제의 국가 체제(천황제)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일제는 이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농민·노동 운동, 항일 민족 운동을 탄압하였다.
- ③ 일제는 ‘범죄 즉결례(1910)’와 ‘경찰범 처벌규칙(1912)’을 제정하고 헌병 경찰들이 정식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조선인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 등을 처할 수 있게 하였다.
- ④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을 제정하여 사상을 통제하고 독립 운동가들을 감시 및 탄압하였다.

33. 다음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관 련 전 투	(가)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영릉가 전투 (나)	호가장 전투 (다)

- ① (가) 청산리 전투 (나) 쌍성보 전투 (다) 흥경성 전투
- ② (가) 쌍성보 전투 (나) 흥경성 전투 (다) 반소탕전
- ③ (가) 봉오동 전투 (나) 반소탕전 (다) 쌍성보 전투
- ④ (가) 흥경성 전투 (나) 쌍성보 전투 (다) 반소탕전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한편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 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좀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일 항전을 펼치고 있는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 지도부와 일부 병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력이 북상하여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결성하고, 호가장 전투(1941)와 반소탕전(1942)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34. 다음 보기의 내용을 발언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
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 ①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 ② 송진우 등과 함께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임시정
부 지지를 선언하였다.
- ③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인수하여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에 반대하여 북한 지도자들과 통일
정부 수립을 논의하고자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자료는 1946년 6월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행한 연설(정읍
발언)이다.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이후 이승만은 전라도
정읍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정답 해설]

- ① 1945년 10월 16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독립 촉성 중
앙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
국 임시 정부 지지를 선언하였다.
- ③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김구, 김규식 등에 대한 설명이다.

35. 다음 보기의 시기에 통과된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으며 헌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만들었다.

- ① 농지개혁법
- ② 귀속재산처리법
- ③ 제주 4 3 특별법
- ④ 반민족행위처벌법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와 제헌 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찾는 문
제이다.

[정답 해설]

- ① 제헌 국회 통과 주요 법안으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
법, 1948. 9.), 국가 보안법(1948. 12.), 농지 개혁법(1949.
6.), 귀속 재산 처리법(1949. 12) 등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③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36. 다음 보기의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6.25 전쟁 발발	휴전협정 조인
	(가)

- ① 대전협정
- ② 부산정치파동
- ③ 반공포로 석방
- ④ 한미상호방위조약

정답 ④

[자료 분석]

6·25 전쟁은 1950년 6월, 휴전협정 체결은 1953년 7월의 일
이다.

[정답 해설]

- ① 대전협정은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였던 대전에서 체결
된 주한미군의 사법 관할권에 관한 외교협정이다.
- ② 부산 정치 파동은 1952년 5월 25일의 계엄령 선포로부터
같은 해 7월 7일의 제1차 개정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이
다.
- ③ 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은 1953년 6월의 일이다.

[오답 피하기]

- ④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10월
에 체결되었다.

37. 다음의 조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① 학생과 시민은 6·3시위로 불리는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 ③ 조약의 제2조에 대해 한국과 북한, 일본이 협의 끝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④ 한일협정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일본과 체결한 한·일 협정(한·일 기본 조약)이다.

[정답 해설]

- ① 1964년 굴욕적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굴욕 회담 반대 시위는 6월 3일 절정에 이르렀으며, 박정희 정부 타도 구호까지 등장하였다. 정부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였다.
 - ② 1965년 6월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오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미흡한 가운데 타결되었다.
 - ④ 한·일 협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을 가리킨다.
- [오답 피하기]
- ③ 한·일 협정은 대한민국(북한×)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의 총칭을 말한다.

38. 다음 중 제3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였다.
- ② 학도호국단이 부활되었다.
- ③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였다.
- ④ 가정의례준칙을 고시하였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① 제3공화국(박정희 정부, 1963~1972) 때인 1968년 4월에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 ③ 제3공화국 때인 1968년 12월에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었다.
- ④ 제3공화국 때인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학도호국단은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창설되었고,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5년 유신 정부에 의해 부활했다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폐지되었다.

39. 다음 제4공화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 ②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제4공화국의 대통령제는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정답 해설]

- ①, ③, ④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고 중임 횟수의 제한을 없앴다. 선출 방법도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로 바꾸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의 1/3 추천 권한,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도 무력화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고 중임 횟수의 제한을 없앴다.

40. 다음 보기의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
니다.
(나)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선거로 88년 2월 평화적 정
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ㄱ. 언론자유수호선언
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ㄷ. 민주화추진협의회 조직
ㄹ.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선출
ㅁ.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1987년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나)는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민주 정의당 대표가 발표한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이다. 전두환 정부는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수용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 해설]

ㄹ. 1987년 6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선출되었다.
ㅁ.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1987년 5월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철회와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사회 운동 단체이다.

[오답 피하기]

ㄱ. 언론자유수호선언은 1971년 4월 동아일보 기자들을 필두로 한 14개 언론사의 언론자유수호선언과 73년 경향신문을 비롯한 10개 신문·방송사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등이 있다.

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의 일이다.

ㄷ. 민주화 추진 협의회는 1984년 5월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민주화 운동 단체이다.